

일 주 문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9월 30일 거창 행복한 집에서 '부처님 글사랑, 행복한절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을 봉행했다.

아프리카학교건립 후원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9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정도회 천일결사 진행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0월 12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8~3차 천일결사를 진행한다.

성보박물관 보존관리교육 불교중앙박물관 화법 스님은 10월 15~16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성보박물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량 유물소장처 보존관리교육을 실시한다.

522km 마라톤 장정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삼보사찰에서 팽목항까지 달리며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 소신축을 위한 모금 레이스에 나선다.

후원의집 장학금 전달식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은 9월 25일 동국대 원효관에서 자영업체 대표들이 후학을 지원하는 '후원의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무료 불교인문학 강좌 이도홍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는 10월 1일부터 '불교인문학강좌-1'을 부처학교 1기'를 진행한다.

송강·선웅 스님, 단나학술상 수상

중앙승가대 단나 학술상에 송강, 선웅 스님이 선정됐다. 중앙승가대는 9월 29일 승가대 자비관에서 송강, 선웅 스님에게 학술상을 시상했다.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로 우수저서 부분에, 동국대 불교학박사 선웅 스님은 '불교학연구' 제 34호에 게재했던 '원오 심요에 나타난 선사상 교향'로 우수 학술논문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나학술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성우)가 선정하는 단나학술상은 중앙승가대 부설 연구기관, 전임교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저서 및 우수학술논문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군·장애인포교 분야서 전법을”

제19회 포교사 고시 최연소·최고령 합격자 송택규·홍현승 씨



송택규 씨, 홍현승 씨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직 나도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을 얻어서 좋고 앞으로 군포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송택규·86)

“장애인 불자들이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장애인들이 불교를 쉽게 접하고 생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승·24)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주최한 제19회 포교사 고시에 최연소·최고령 응시자가 나란히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인 송택규 거사봉은사 불교대학은 “나이 많은 저를 합격시켜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포교활동을 위해 꾸준히 불교공부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소 합격자인 홍현승 씨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도 장애인 포교지만 불교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거사는 30여 년 간 약사사·봉은사·금강선원 등을 다니며 불교와 인연을 맺어

왔다. 불교방송, 불교TV에서 진행하는 선지식 법회 등은 늘 챙겨 듣고 불교 관련 서적을 섭렵할 정도로 신심이 깊다. 그러다 송 거사는 제12회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딸을 보고 용기를 얻어 포교사 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송 거사는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기초불교대학 3개월 과정을 이수 한 뒤 봉은사·조계사 불교대학을 거쳐 불교교리와 습의 과정 등을 익혔다.

송 거사는 “청년들을 포교해야 불교가 발

전한다고 생각했다. 6·25 참전용사로서 4년 8개월간 전시 복무를 한 경험을 살려 군포교 분야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현승 씨는 출생 시 호흡곤란으로 뇌성 소아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 생활활동으로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포교사의 원을 세웠다. 홍 씨는 “절에 다니다보니 장애인들이 많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길래’ 하며 부정적이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며 “부처님도 장애인 제자를 두셨고,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내 주위 도반들로부터 왜곡되지 않은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화계사 포교사회 포교사 고시반에 출석하며 10여명의 예비 포교사들과 필기 준비를 했고 연수기간 중 화계사에서 목탁 교육을 받았다.

대학에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있는 홍 씨는 “제 전공을 살려 불교를 주제를 한 글과 찬불가 작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포교라고 생각한다”며 포교사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이냐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 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개최



제 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3일 강남구 대려도에서 진행했다.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23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4일 강남구 대려도에서 열렸다. 올해는 유나방송 정목 스님(특별상)과 성의신 마하연 단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상 수상자인 정목 스님은 “출가승으로 불법을 알리는 일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떨떨하고 멍했다. 사실 이 상은 불교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된다. 출가 승려에게 내리는 족비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예술상 수상자 성의신 마하연 단장은 “불교 음악을 숙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동안 고난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 여개가 무거워지고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음악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 심사위원인 동명 스님(전등사 주지),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하준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24교구 신도들 역량 결집에 최선”

박승규 조계종 24교구신도회장



석전기념관 건립과 불교회관 건립사업에 불자들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1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교구 신도회 창립 법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한 박승규(65세, 정읍 박병원 원장·사건)의 취임 일성이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21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본발사 대중스님들과 관음회, 선사모, 거사팀, 합창단, 청년회의 신행단체 임원들과 24교구 말사 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교구 신도회의 창립은 종단의 역점사업이자 교구의 숙원사업”이라며 “조계종 신도의 일원으로 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선운사의 역점사업인 석전기념관 및 고창 불교회관 건립에 신도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광주본존지장회원의 일원으로 철야정진을 이어오고 있는 박 회장은 30여 년전 선운사 종무원의 뇌수술을 한 인연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서 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규 회장은 1989년 개원 후 선운사 스님들의 건강을 무료로 책임져왔다. 박 회장은 스님은 물론 신부, 수녀, 목사 등 종교인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 회장은 광주서중, 광주일고,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뒤 광주 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대중대중사 21주기 열반대제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총흥을 이끈 대중대중사의 21주기 추모 열반대제가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중대중사 21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다. 열반대제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위원장 윤덕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몽골포교당 주지 바토안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익 기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화합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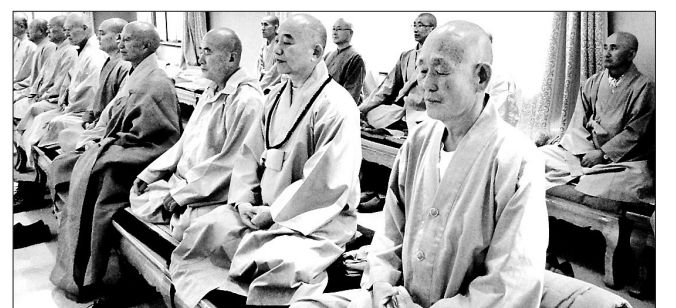
서울 관악구 원각사(주지 연호)는 9월 17일 경내 야마당에서 '제2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구 남현지역 예촌경로당, 관수경로당과 지역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식사와 소리꾼 이효덕 명창의 문화공연 등을 제공했다.

원각사 주지 연호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화합한마당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승가대 동문 中 서안 순례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서안 불교를 순례했다. 사진은 법문사 선원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스님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우)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세계 4대 고도로 꼽히는 서안지역을 순례했다.

4박 5일간 스님들은 현장 스님이 역경을 진행했던 대자언사를 비롯해 법문사, 초당사, 정업사, 지상사, 효교사 등 사찰을 순례하며 신라의 원족, 의상스님 등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특히 지상사 방장 스님은 총동문회장 정우 스님에게 화엄경 10절을 선물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 (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0월 31일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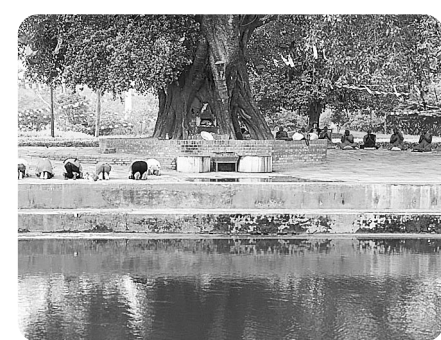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천상의 왕국을 찾아서, 부탄

행복한 나라 1순위 부탄, 부탄국왕소정 예인스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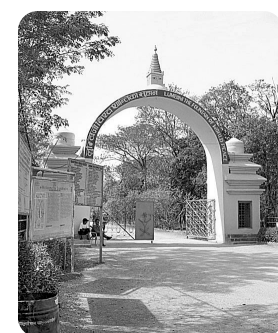
네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도드리는 신도들



▲룸비니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 ◆날 짜 : 10월 예정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룸비니동산 입구